

비체로서의 샤일록

이 미 선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은 악한이자 악마로서 간주되거나 기독교 사회에서 부당하게 박해당하는 피해자로 간주되어왔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유물론 이후의 비평에서는 문학 텍스트나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타자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켜서 유대인 샤일록을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타자로 해석해냈다. 이 논문은 크리스테바의 비체화 이론을 토대로 타자로서의 샤일록이 어떻게, 왜 비체로서의 샤일록이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비체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샤일록은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가 깨끗하고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어놓은 경계선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 타자, 즉 비체가 되었다. 샤일록을 비체로 만드는 장치인 경계선에는 계토와 특수한 유대인 복장 같은 눈에 보이는 경계선과 종교적, 경제적 측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그러나 샤일록은 빌려간 돈을 제날짜에 갚지 못한 앤토니오에게 1파운드의 살을 떼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런 경계선을 넘어 기독교 사회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경계선을 넘으려는 샤일록의 시도는 1파운드의 살에 대해 다른 해석체계를 제시한 포오사에 의해 저지당하고 샤일록은 다시 비체의 자리로 추방된다. 비체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비평은 타자의 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항상 경계를 벗어나서 지배 체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조한다.

주제어 :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크리스테바, 비체화, 비체

I. 서론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등장하는 유태인 샤일록(Shylock)에 대한 평가는 크게 “악한(villain)으로서의 샤일록” 대 “피해자(victim)로서의 샤일록”으로 양분될 수 있다(Meyer 1). 커모드(Frank Kermode)와 오든(W. H. Auden) 같은 초기의 셰익스피어 비평가들은 샤일록을 기독교인의 자비와 사랑에 대적하는 악한으로 간주했다. 샤일록을 악한으로 간주하는 스미스(Warren D. Smith) 같은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1960년대 이후 무디(A. D. Moody)나 댄슨(L. Danson) 같은 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승리를 애매모호한 승리로 간주하고, 샤일록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오샤가 판사 자격도 없이 교묘한 속임수로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정의를 조롱하고 기독교의 자비가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샤일록의 요구와 항변에 근거가 있고 그를 동정 받을 만한 인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샤일록을 베니스 사회의 편견에 의해 박해받는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이런 입장은 샤일록을 악한으로 규정하는 이전의 입장과 함께 샤일록에 대한 평가의 두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극계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타났다.

샤일록은 주로 희극적 인물로 연기되었지만, 1741년에 찰스 맥클린(Charles Macklin)에 의해 악한이자 괴물로 변모되었다. 에드먼드 킨(Edmund Kean)은 낭만주의 시대에 그를 불쌍한 인물로 인간화시켰다... 빅토리아 시대인 1879년에는 헨리 어빙(Henry Irving)이 샤일록을 고상한 비극적 인물로 연기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이 작품은 샤일록의 드라마가 되었다.¹⁾

“악한으로서의 샤일록” 대 “희생자로서의 샤일록”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평가의 구도를 벗어나서 악한으로서의 샤일록과 희생자로서의 샤일록 두 측면을 모두 해석해 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준 것은 1980년대 이후 활발

1) Marjorie Garber, *Shakespeare After All*, New York: Pantheon Books, 2004, p. 302.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타자(Other)에 대한 연구다. 신역사주의는 문학텍스트가 특정한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다고 간주하고, 문화유물론은 문화를 전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유물론의 비평 관점은 전통적 문학비평의 원류였던 기독교 사상을 근거로 하는 서구중심문화, 백인 및 남성우월주의 등의 관점에서 벗어나 유색인종이나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 등 문학 텍스트나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타자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여 해석의 중심에 세우는 역할을 한다.²⁾

신역사주의와 문화유물론은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에서 유태인 샤일록을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타자”(125)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혐오당하는 대상”으로 평가했다(Young-Keun Kwon 300). 그들은 샤일록이 “악마”나 “악한”으로서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박해받는 피해자가 된 원인을 샤일록의 타자성으로 설명해 냈다.

이 논문은 이런 “타자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되,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비체화(abjection) 이론을 토대로 타자가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타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추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타자로서의 샤일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비체(object)로서의 샤일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려 한다.

II. 타자로서의 샤일록

15세기 말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유태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등지로 흩어졌다. 베니스에 유입된 유태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자, 베니스 공화국은 1516년에 “게토”를 만

2) 백민아, 「‘타자’로서의 유태인」, 『영어영문학 연구』 54.2, 2012, p. 125.

들어서 유태인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유태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빨간 색 모자 같은 특수한 복장을 착용하게 했다. 유태인들은 베니스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대신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할 수 있는 자유와 전쟁 시 신분보호를 보장받았다.

근대의 초기 유럽에서 유태인들은 세수(稅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혈관” 역할을 했다(Kitch 133). “기독교 중심적인 이상들”이 지배했던 베니스에서 유태인들은 “가혹할 정도로 배제를 당했어도 베니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Davis xii). 유태인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 해외 무역상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들에게 게토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무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베니스 사회에 상업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베니스에 유태인들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중해에서 위축되고 있던 베니스 공화국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유태인들과 오토만 제국과의 정치적 유대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Davis xii). 또 다른 이유로는 더 많은 유태인들을 베니스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들이 “베니스 제국의 주요한 군사적 경쟁자이자 무역의 경쟁자였던 터키인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Kitch 142).

베니스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덕분에 유태인들은 제한적이거나 거주권과 법적 권리, 안전보장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베니스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타자였다. 이것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태인들이 “외국인”으로 규정되고 또 “외국인”으로 불린다는 사실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토니오(Antonio)는 유태인들을 “외국인/이방인”(stranger)(3.3.27)이라 부르고, 포오샤 역시 법정장면에서 “외국인”(alien)(4.1.345)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을 베니스에서 몰아내거나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런 사실은 솔라니오(Solanio)와 안토니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솔라니오: 공작님께서 설마

이런 계약 위반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안토니오: 아냐, 공작님도 법의 정당성을 굽히실 순 없지.

외국인들이 이 베니스에서 갖고 있는

특권이 거부당해 보게.
이 나라의 정의는 크게 의심받을 게 아닌가.
더구나 이 베니스의 무역과 이익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말일세. (3.3.24-31)

이 대화를 통해 이 “외국인들”이 베니스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오샤가 대변하는 국가의 법은 샤일록이 앤토니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가정 하에 샤일록을 “외국인”의 위치로 되돌려 버린다.

포오샤: 가만있으시오, 유태인.

또 한 가지 법의 적용을 받을 일이 있소.
이 베니스의 법률에 의하면
만약 외국인으로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 사실이 명백히 되는 경우는
범인의 재산의 반은 피해자가 될 뻔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고
나머지 반은 국고에 몰수되오.
동시에 범인의 생명은 오직
공작의 재량에 맡겨지고 타인은 일절 간섭을 하지 못하오.
아시겠소, 원고는 지금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오.
이유인즉 원고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피고인의 생명 그 자체를 위협한 것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분명하니
원고는 본관이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오.
그러니 원고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공작님의 자비를 바라야 하는 것이오. (4.1.343-59)

베니스에서 유태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타자로 존재하는 동시에 인종적, 종교적 타자로 작용한다.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들은 기독교인인 베니스 인들과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르다. 유태인들이 베니스에서 타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샤일

록”이라는 이름 대신 “유태인”으로 지칭된다는 사실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샤일록의 하인, 고보(Gobbo)와 그의 아버지는 샤일록을 “유태인 주인”(2.2.32; 2.2.37)이라 부르고, 솔라니오 역시 샤일록을 “유태인”(2.8.14)이라 부른다. 법정 장면에서 공작은 샤일록을 “유태인”(4.1.34)이라 지칭하고 포오샤 역시 계속해서 “유태인”(4.1.170; 4.1.178; 4.1.340)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태인(Jew)”이라는 단어는 58번 사용되었지만 “샤일록”이라는 이름은 17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D. M. Cohen 58).

“유태인”이라는 호칭은 “기독교인” (혹은 “상인”)과 구분되고 이런 구분 자체가 “차이를 나타내는 기호, 즉 표시”로 작용한다(Garber 283).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태인”이라는 명칭은 인종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기보다 일종의 “불명예의 표시”다(Stoll 244).

유태인들이 베니스에서 종교적 타자로 작용한다는 것은 샤일록이 “이단자(non-believer)”(1.3.106)로 불리고, 제시카Jessica 역시 로렌소Lorenzo와 결혼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계속 “이교도(infidels)”(3.2.217)로 불린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기독교 중심의 베니스 사회에서 유태인은 “이교도”로서 종교적 타자일 뿐이다. 정치적, 사회적, 법적 타자이자 인종적, 종교적 타자인 유태인들은 경제적 타자이기도 하다. 베니스의 유태인들에게는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제목에서 “상인”은 샤일록이 아니라 앤토니오다.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 법에 의해 - 상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짜 상품이나 물건을 팔거나 교환할 수 없었다”(Garber 285-86). 상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샤일록이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한 고리대금업에 대해 기독교인들, 특히 앤토니오는 비난과 모독을 가하고 그의 사업을 방해한다. 샤일록의 대사에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뿐인가, 비열하고도 어리석게도

무이자로 돈을 대부하곤, 베니스의 우리 대금업자 사이에

이자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욱 미워 죽겠어...

저 높은 우리네 선민을 중요하고

상인들이 운집한 곳에서도 나를, 내 장사를 비난하거든. (1.3.37-44)

앤토니오 씨, 당신은 여러 차례
 거래소에서 날 비난하셨지요,
 내 대금과 이자에 대해서요.
 그래도 난 어깨를 으쓱했을 뿐 다 참아 왔소.
 참을성은 우리 민족의 특성이니깐요.
 나를 이단자니 살인자니 개니 하면서
 당신은 우리 유태인의 옷웃에 침을 뱉었소...
 당신은 내 수염에다 침을 뱉고,
 도둑개를 문지방 밖으로 차내듯이 날 찼소. (1.3.101-14)

실제로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고리대금업을 주도한 사람들이 유태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고 16세기 이후 근대 상업무역도시에서 고리대금업이 필요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난을 받은 것은 그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리대금업에 대해 샤일록이 받은 도덕적 비난은 타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다.

이렇게 베니스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법적 타자로서, 인종적, 종교적 타자로서, 그리고 경제적 타자로서 존재하는 유태인들에게는 항상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미지가 투사된다. 베니스 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인 “유태인”이라는 호칭은 “악마”나 “악한” 혹은 “개” 같은 말과 함께 사용되거나 이 용어들로 대체된다. 앤토니오는 샤일록을 “악마”(1.3.93) 혹은 “악한”(1.3.95)이라 부르고 솔라니오와 바사니오 역시 그를 “악마”(3.1.18; 3.1.62; 4.1.213)로 지칭한다. 광대인 란슬롯(Lancelot)조차 자기 주인을 “악마”(2.2.22-26)라고 칭한다. 또한 앤토니오와 그레시아노, 솔라니오 모두 샤일록을 “개”(1.3.106; 4.1.128-67; 2.8.14)라고 부른다. “악마”와 “개”라는 명칭은 샤일록으로 대변되는 유태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의 표시이자 유태인에 대한 공포와 편견의 강도를 보여준다.

가버의 지적처럼 샤일록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소유욕과 가족에게 성을 잘 내는 성격, 경쟁자를 이기고자 하는 성향” 등 유태인이라는 타자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인적인 차원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298). 그러나 샤일록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샤일록에 대한 증오는 법정 장면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포오샤는 앤토

니오가 기한 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증서에 적힌 대로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하는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권유하지만 샤일록이 이를 거절하자 1파운드의 살에 피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서 샤일록의 요구를 좌절시킨다. 그녀는 외국인이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목숨을 앗을 수 있다는 법을 언급한다. 앤토니오는 샤일록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를 기독교로 개종시키자고 제안하고 샤일록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재산 몰수와 사형이라는 처벌과 달리 샤일록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 표출되는 “타자성을 부인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타자성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Schneiderman 176). 그렇다면 왜 포오샤와 앤토니오는 타자와 타자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대신 그것을 말살하려고 하는가? 타자의 존재가 사회에 위협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게 타자에 반응하는가?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타자에게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가? 타자로서의 샤일록은 어떤 방식으로 베니스 사회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하는가?

타자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연구는 유대인 샤일록이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에서 타자로서 겪는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차별과 억압에 집중한다. 이 논문은 샤일록의 이런 타자성이 억압되고 부인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크리스테바의 비체화 이론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샤일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비체화된 타자인 비체가 되는지 규명함으로써 타자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III. 비체로서의 샤일록

타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이유를 크리스테바는 낯선 것과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즉 타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는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발휘하는 폭력성을 크리스테바는 “공포의 권력”으로 표현한다. 타자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 동질성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나’는 타자성을 밖으로 추방하는 경우에만 ‘나’라는 경계를

세울 수 있다. 자아와 타자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형성될 수 없다. ‘나’를 정립하기 위해 타자를 경계선 밖으로 배제하고 추방하는 것이 바로 비체화고 추방당한 타자가 바로 비체다.

크리스테바의 비체화 이론은 라캉의 주체 이론에서 출발한다. 라캉은 아이가 거울이미지와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울단계”라고 부른다(1-7). 그러나 아이가 ‘나’로 규정한 거울이미지는 외부에 존재하는, ‘나’의 “전도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체적 통일성과 총체성을 가정하는 허구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Écrits: A Selection* 2). 거울이미지나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서로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관계가 “상상계(the Imaginary)”이고, 이런 상상계적인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나’가 자아(ego)다(*Écrits: A Selection* 97). 이런 상상계적인 동일시를 통해 주체는 나/타자, 내부/외부, 예고/예고가 아닌 것을 규정한다. “주체는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안정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요소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을 떼어내서 배제시킨다”(Coats 140).

더러운 것을 배제하는 이런 과정을 크리스테바는 “비체화”라고 부른다(*The Powers* 4). 비체화란 “주체가 깨끗하고 정결한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주체와 대상,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자아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깨끗하고 적절치 못한 자아의 일부를 추방하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Coats 140). 예를 들면 배설물, 땀, 침, 눈곱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의 일부이지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비체다.

비체는 그 자체로 더럽거나 불결한 것이 아니다. “더러움이나 비천함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특질이 아니지만 그것은 경계와 관련이 있는 것에만 적용되고 특히 그 경계 밖으로, 다른 쪽으로, 주변으로 버려지는 대상”(Kristeva, *The Powers* 69)이며, 주체가 “깨끗하고 적절한”(Coats 139) 몸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다. “비체화를 야기하는 것은 깨끗함이나 건강함의 부재가 아니라 정체성과 체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경계들, 지위들, 규칙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사이에 낀 것들, 애매모호한 것들이다”(Kristeva, *The Powers* 4). 그러므로 비체화는 “주체로 하여금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안정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방의 과정이

다”(Coats 140).

비체는 인간생활과 문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부적절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대상, 말 그대로 자신에게 타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체화란 그런 타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억압하고 추방하는 과정이다.³⁾

비체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자아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공간을 지칭하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공동체와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공간을 지칭한다”(Coats 141). 주체가 “깨끗하고 적절한 몸”을 형성하기 위해 더럽고 부적절한 것들을 추방하는 것처럼 사회적 영역에서도 공동체와 국가의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 비체화가 일어난다. 자아와 공동체, 국가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위협하는 타자가 침입할 때 두려움이 촉발되고” 타자를 추방하는 비체화가 일어난다(Kristeva, *Strangers to Ourselves* 41). “사회 역사 전반에 걸쳐 인종과 성, 장애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유지된다”(Coats 141).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발견되는 비체의 예에는 “음식물, 때, 오물, 시체” 혹은 “배설물, 생리혈”부터 “반역자, 거짓말쟁이, 양심을 속이는 범죄자, 파렴치한, 강간범...비수로 나를 찌르는 친구”가 있다(Kristeva, *The Powers* 4; 71). 뿐만 아니라 “흔히 여성들, 미혼모들, 소수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매춘부들, 전과자들, 빈곤층, 장애인들 같이 자주 주변으로 밀려나는 집단들”이 포함된다 (Creed 64). 주변으로 밀려난 집단들에는 성소수자들 (LGBT), 불치병 환자들, 한센 병 환자들, 고아들, 결손가정, 노인들, 이혼자들, 아동들, 외국인 노동자들, 소수민족들, 이민자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처럼 흔히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주변으로 밀려나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사일록 역시 베니스 사회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위협하는 타자로서 기독교 중심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고 있는 비체다.

3) 정은숙, 「자메이카 키키키드의 『애니 존』에 나타난 어머니/식민지 본국의 비체화」, 『영어영문학』 57.2, 2011, 296쪽.

그렇다면 샤일록은 어떤 비체화 방식을 통해 비체가 되었는가? 샤일록이 비체가 되는 첫 번째 방식은 경계선 긋기다. 앞에서 비체화는 주체가 깨끗하고 정결한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주체와 대상,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자아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깨끗하고 적절치 못한 자아의 일부를 추방하고 배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브래디(Mary Pat Brady)는 경계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비체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경계선을 “비체화 기계장치”로 정의 내린다(171). 예를 들어 기독교인과 유대인,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유대인과 여성, 장애인은 기독교인, 남성, 비장애인의 무리에서 타자로 배제되고 분리되어서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 비체가 된다. 경계선은 타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이자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질성과 총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베니스의 상인』의 베니스에는 샤일록을 비체로 만든 “세 가지 형태의 경계선”인 유대인 거주지 계토와 유대인의 특수복장, 그리고 종교적, 경제적 경계선이 존재한다(Senturk 4-5).

1516년에 베니스의 시의회는 유럽 최초의 유대인 거주지역인 계토를 세우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박해를 피해 베니스에 온 약 700명의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베니스는 유대인들에게 계토 안에서만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유태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했고, 종교적 박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네 개의 육중한 문으로 분리된 별도의 구역에서 살았고 이 문들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 주민들로부터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면에서도 수 세기 동안 분리시키는 격리자 역할을 했다. 계토라는 경계선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독교 중심의 베니스 사회에서 비체로 만드는 장치로 작용한다. 계토는 베니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주거지 분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베니스의 계토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계토는 여전히 비체를 만들어내고 있고, 비체당한 사람들의 거주지로 남아 있다.

샤일록을 기독교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또 다른 가시적인 경계선은 유대인들의 타자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유대인이 착용했던 특별한 복장이다. 베니스의 계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빨간 색 모자 같은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었다. 샤일록이 입고 있던 “유태인의 옷(Jewish gaberdine)”(1.3.107)은 앤토니오에게 여러 번 조롱당한다. 샤일록의 복장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기독교인과 유태인들 사이에 실제적인 경계선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를 비체의 위치에 집어넣는다.

샤일록을 비체로 만드는 또 다른 경계선으로는 유태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이 경계선은 종교적인 배타성과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 대화에서 샤일록의 말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교리를 믿는 유태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사니오: 같이 식사나 나눕시다...

샤일록: 당신들과 거래도 하고, 산보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밖에 다른 일도 하겠지만 식사나
술은 같이 못 하겠소. 기도도 같이는 못하겠소. (1.3.28-33)

종교적인 갈등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요소는 고리대금업과 연관되어 있다. 앤토니오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샤일록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 앤토니오가 “무이자로 돈을 대부하곤, 베니스의 우리 대금업자 사이에 이자를 떨어뜨리기 때문에”(1.3.38-39) 그를 증오한다는 샤일록의 말은 유태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측면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적, 경제적 측면의 경계선을 간단히 표현하면, 샤일록은 “경제에서 마진으로 먹고 사는(live and trade on margin, as well as on the margins)” 사람이다(Garber 284). 그리고 이 두 개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인해 비체화가 일어난다.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유태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기독교 사회에서 앤토니오는 당당하게 샤일록을 비체로 취급하면서, 그가 기독교 생활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동물적인 특질과 악마의 속성을 부여한다. 그 결과 샤일록은 “개”나 “악마”로 불리는 비체가 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비체로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은 동일한 해석 체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계선 내부의 사람들끼리만 같은 해석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해석 체계를 가

진 타자의 유입을 막는 방법이다. 『베니스의 상인』은 가버의 지적처럼 “본질적으로 해석에 대한, 해독의 행위에 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303).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해석체계와 연관된 비체화가 두 번 일어난다. 하나는 포오샤와 결혼하려는 구혼자들이 세 상자 중 하나를 고르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앤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 내려는 사일록과 그의 시도를 저지하는 포오샤의 대결이 일어나는 법정 장면이다. 물론 상자 선택 장면에서 벌어지는 비체화는 사일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법정 장면의 비체화는 상자 선택 장면에서 벌어지는 비체화의 반복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테베 입구에 자리를 잡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스팅크스처럼 포오샤의 아버지는 포오샤와 결혼하려면 그녀의 초상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고르도록 각 상자마다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적어 놓는다. 스팅크스는 수수께끼를 맞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어 버리고, 포오샤의 아버지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구혼자들을 평생 다른 “여자에게 구혼하지 못하게”(2.1.41-42) 함으로써 그들에게 상징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만이 살아서 테베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포오샤의 아버지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만이 포오샤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의 남편으로 살 수 있었다. 경계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즉,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체계를 이해하고 같은 해석체계를 갖는 것이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에 설치된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자 암호가 된다. 반면에 같은 해석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자들은 가차 없이 배제되고 추방당한다. 같은 해석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없느냐의 여부가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포오샤의 구혼자들은 “나를 고르는 자는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리라”(2.7.5)는 글귀가 적혀 있는 금 상자와 “나를 고르는 자는 신분에 응당한 것을 얻으리라”(2.7.9)는 글귀가 적혀 있는 은 상자, 그리고 “나를 고르는 자는 전 재산을 내놓고 운명에 걸게 되리라”(2.7.9)는 글귀가 적혀 있는 납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만심 강한 모로코왕은 금이라는 외관에 속아 금 상자를 고르지만 그 안에는 “만인이 원하는 것”인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바가지가 들어 있다. 모로코 왕과 마찬가지로 자만심 강한 애리곤 왕 역시 외관에 속아 은 상자를 선택하고 그 안에는 어리석은 자만심으로 가득

한 그에게 “응당한 것”인 바보의 초상화가 들어 있다. 베니스인 바사니오는 금이나 은의 외관에 현혹되지 않고 납 상자를 고름으로써, 모든 것을 내놓고 “운명에 걸어야 되는” 대상인 포오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르는데 성공한다.

바사니오는 금과 은이 상징하는 돈을 좇는 구혼자들과 자만심에 찬 어리석은 구혼자들을 차단하려는 포오샤의 아버지의 의도를 잘 읽어냄으로써 포오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풀었다. 그는 포오샤의 아버지가 가진 가치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냄으로써 서로 동일한 해석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다. 포오샤의 아버지와 같은 해석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구혼자들은 포오샤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구혼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동일한 해석체계를 공유하느냐의 여부가 경계선 곳기와 마찬가지로 타자와 타자성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비체화의 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세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장면에서는 동일한 해석체계의 검증은 통해 또 다른 방식의 비체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모로코 왕과 애러곤 왕은 포오샤에게 외국인이다. 모로코왕은 이슬람교를 믿고 피부색이 검은 무어인들이 사는 나라의 왕이다. 포오샤는 모로코 왕의 피부색과 연관해서 “마음이 성자 같을지라도 얼굴색이 악마 같을 바에야...날 아내로 삼을 생각을 마시라지”(1.2.123-25)라고 말하고 그가 잘못된 상자를 선택하자 안도한다. 『베니스의 상인』의 여러 등장인물들이 샤일록을 “악마”로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오샤 역시 모로코 왕의 검은 피부색을 “악마 같다”(1.2.123)고 표현하면서 그를 “적합하지 않은” 배우자 후보로 배제해 버린다. 그녀의 말과 태도를 통해 “기독교인과 유태인 사이뿐만 아니라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난다(Garber 289).

애러곤 왕은 무대에서 “주로 은발의 머리와 턱수염이 난 노인”으로 연기되었고, 애러곤 왕이라는 직함은 그가 스페인 인이며 가톨릭교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290). 사회적, 종교적 순수함을 추구하면서 유태인들과 이슬람교도들, 무어인들을 박해하는 종교재판을 15세기에 시작한 스페인의 가톨릭 왕실은 유태인들에게 거주권을 부여한 베니스나 가톨릭 교황청으로부터 벗어나서 국교회를 설립한 영국의 기독교 사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혹독했다. 모로코 왕과 애러곤 왕은 술주정뱅이 독일인 구혼자나 멧쟁이 프랑

스인 구혼자보다 “더 위험한 종류의 타자성, 즉 흑인과 노인, 이슬람교도와 가톨릭교도”를 구현하고 있다(290). 베니스 사회의 동질성과 정체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타자성은 비체화의 대상이 되어서 배제되고 추방되어야 한다. 모로코 왕과 애러곤 왕은 세 상자 선택이라는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은밀하게 배제되고 추방된다. 포오샤의 남편으로 적합한 대상은 베니스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가치체계와 해석체계를 지닌 베니스인이자 기독교인인 바사니오가 된다.

해석체계와 연관된 비체화가 일어나는 또 다른 장면은 법정 장면이다. 두 장면에서 모두 해석체계와 연관된 비체화가 일어나지만 두 장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상자 선택 장면과 법정 장면의 차이점은 상자 선택 장면에서는 비체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정 장면에서는 비체화가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체인 모로코 왕과 애러곤 왕이 아직 내부로 들어오지 못한 아웃사이드로서의 타자인 반면, 법정 장면에서 비체인 샤일록은 베니스 사회 내에 존재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타자라는 점이다. 비록 베니스 사회의 타자로, 비체로 존재한다 해도 그는 이미 “베니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태인들에 속해 있었다(Davis xii). 상자 선택 장면과 법정 장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상자 선택 장면에서는 경계선 위반 시도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법정 장면에서는 “경계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일어난다는 점이다(Sentürk 7). 상자 선택 장면에서는 모로코 왕과 애러곤 왕으로 대변되는 비체들이 포오샤의 아버지로 대변되는 경계선 안쪽의 사람들이 그어 놓은 경계선 안으로 침범하려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로코 왕과 애러곤 왕은 포오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지 못한 후 결과에 승복하고 떠난다. 그러나 법정 장면에서 샤일록은 차용증서에 따라 법에 의거해서 앤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내려 함으로써 기독교 중심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베니스의 상인』은 “해석에 대한, 해독의 행위에 대한” 작품이고 법정 장면은 해석 체계의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비체화 과정을 보여준다. 법정 장면은 “1파운드의 살”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해석 싸움이다.

안토니오는 바사니오를 위해 샤일룩에게서 삼천 더커트를 빌리지만 상선들의 난파로 지불기한을 넘기게 된다. 그러자 샤일룩은 안토니오가 담보로 제시한 1파운드의 살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작의 특권과 베니스 시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4.1.39)이기 때문에 베니스 공작은 샤일룩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내려는 샤일룩을 저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베니스의 공작은 “자비와 연민을 보여줄 것으로 세상은 생각하고 있고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있네”(4.1.19-20)라고 말하고, 포오샤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한다.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이오.
따라서 자비를 가지고 정의를 부드럽게 할 때 지상의 권력은
신의 권력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오. 그러니 여보 유태인,
당신의 주장이 비록 정의에 의거한 것이긴 하나 생각해 보시오.
누구나 정의만 좇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오. (4.1.191-96)

샤일룩의 자비심에 대한 호소가 실패하자 바사니오는 빌린 돈의 두 배를 갚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샤일룩은 “그 육천 더커트의 일 더커트 일 더커트가 여섯 조각이 나서 그 조각조각이 일 더커트씩 된다 해도 받지 않고”(4.1.85-87), “베니스를 몽땅 쥐도 싫다”(4.1.229)며 이 제안을 거절한다.

샤일룩에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안토니오 개인에 대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유태인을 타자로 억압하고 배제하는 폐쇄적인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에 복수할 수 있는 일종의 ‘미끼(bait)’(3.1.47)로 작용한다. 이제 이 1파운드의 살에 베니스 사회의 총체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실리게 된다. 베니스의 입장에서 샤일룩에게 1파운드의 살을 잘라 준다는 것은 이교도인 유태인을 받아들여서 베니스의 동질성, 즉 총체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샤일룩에게 이 1파운드의 살은 폐쇄적인 베니스 사회로 들어가서 동등한 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허가증이다.⁴⁾

4) 이미션, 「단일 의미의 불가능성-『베니스의 상인』에서 ‘1파운드의 살’을 중심으로」, *Shakespeare Review*, 1998, p. 244.

베니스 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1파운드의 살을 포기할 수 없고 샤일록은 비체로 존재하던 베니스 사회에서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1파운드의 살을 반드시 받아내려고 한다(Eagleton 43).

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집요하게 엔토니오의 살을 요구하는 샤일록의 행동은 그동안 비체로서 살아왔던 베니스 사회에서 “기독교인과 유태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넘어가려는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Sentürk). 경계선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베니스 사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는 샤일록과 비체의 침범 의도를 저지하려는 - 발다자(Balthazar)로 변장한 - 포오샤의 대결은 “1파운드의 살”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증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4.1.235) 실행하라는 샤일록의 원칙은 ‘1파운드 살’이라는 문구가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포오샤는 증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실행하라는 샤일록의 요구를 따르면서 그 요구에 들어 있는 맹점, 혹은 허점을 이용한다. 그녀가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1파운드의 살’이라는 문구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포오샤는 샤일록이 ‘1파운드의 살’을 인접성에 의해 피까지도 포함해서 환유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포오샤가 샤일록에게 반격을 가하는 무기는 바로 샤일록 자신이 요구했던 ‘문구 그대로’의 축어적인 해석이 사실은 환유적인 해석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하나의 기표에는 하나의 기의만이 존재할 수 없다. 단일한 축어적인 해석이란 불가능하다. 언어에는 이미 은유와 환유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축어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포오샤는 ‘증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실행하라는 샤일록의 요구를 좌절시킨다.’⁵⁾

샤일록이 “1파운드의 살”을 “1파운드의 살과 피”로 해석한 반면 포오샤는 “1파운드의 살”을 “피를 제외한 1파운드의 살”로 해석함으로써 베니스 사회가 샤일록과는 다른 해석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것

5) *Ibid.*, pp. 245-48.

을 통해 포오샤는 베니스 사회가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오려는 샤일록의 의도를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송두리째 몰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인 후 샤일록을 원래의 자리인 비체의 자리로 추방한다. 베니스 기독교 사회라는 지배 체제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오려는 샤일록을 다시 비체의 자리로 방출한 것이다. 법정 장면은 버틀리의 말처럼 샤일록 같은 “타자들을 배설물”(Butler, *Gender Trouble* 134)처럼 “추방하고, 내쫓아내는”(Butler, *Bodies* 243) 비체화의 의식(儀式)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장면에서 샤일록의 경계선 넘기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경계선 넘기가 시도된다. 법정 장면은 인종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경계선 넘기와 젠더 차원에서의 경계선 넘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샤일록이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선을 넘으려 했다면, 포오샤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계선을 넘는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포오샤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 타자였다. 이것은 결혼 전에는 “죽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살아 있는 딸의 의사가 제한을 받는다”(1.2.23-24) 상황과, 결혼 후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집이며, 하인들이며, 제자신 등 모두 저의 주인이신 당신의 것이에요!”(3.2.169-71)라며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복장과 활동 영역 등 여러 측면에서 경계선이 존재했고 여성은 경계선 밖에서 비체로 살아야 했다. 포오샤는 남장을 통해 복장의 경계선을 넘어선다. 남장은 여자 주인공의 주도권 행사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포오샤에게 자율성과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장치가 된다. 남장을 통해 포오샤는 여성의 영역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셰익스피어의 여주인공들 중 유일하게 남성들만의 영역인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법정에 들어가서 법과 자비심의 문제를 다루고, 지성과 기지를 발휘해서 남성들이 실패한 샤일록의 비체화에 성공한다. 그러나 베니스 사회의 비체인 샤일록이 또 다른 비체인 여성에 의해 비체화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포오샤 역시 기독교 사회의 일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타자를 대하는 이상적인 방식으로 타자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최소한의 조건 이행도 요구하지 않은 채...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주라”고 말한다(*Of Hospitality* 77).

우리는 타자가 누구이건, 서류도, 이름도, 전후관계도, 여권도 요구하지 않고,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타자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즉, 내 공간과, 내 가정과, 내 집과, 내 언어와, 내 문화와, 내 나라와, 내 국가와, 내 자신을 열어주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환대는 타자가 “무조건적으로 내 공간에 들어와서 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 놓고, 뒤엎어놓고, 훼손하고,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야기한다(Derrida 1997). 타자가 나를 침범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타자와 나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서 타자가 내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무수한 경계선이 존재하고 이 경계선은 수많은 비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비체들은 끊임없이 이 경계선을 넘어 다른 쪽을 침범함으로써 경계선을 교란시키려 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경계선을 넘으려는 비체의 시도는 샤일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앤토니오에게 삼천 더커트에 대한 보상으로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함으로써 유태인을 비체로 만드는 장치인 기독교인과 유태인 사이의 경계선을 침범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1파운드의 살”을 “피가 포함되지 않은 살 1파운드”로 해석해 낸 포오샤에 의해 좌절된다. 포오샤는 “1파운드의 살”을 “피를 포함한 살 1파운드”로 해석한 샤일록의 해석과 자신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시도를 저지한다. 그녀는 샤일록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기독교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다시 확립하고 샤일록을 원래의 자리로

6) Jacques Derrida, “Politics and Friendship: A Discussion with Jacques Derrida at the Center for Modern French Thought,” University of Sussex. Web. 10 Jan. 2018.

추방해 버린다.

베니스의 지배 체제가 경계선 밖의 비체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샤일록의 항변에서도 경계선을 넘으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유태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선에도 불구하고 유태인과 기독교인 모두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샤일록은 경계선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유태인은

눈이 없나? 아니 유태인은 손이, 육체가,
감각이, 감정이, 정열이 없단 말인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연장에 다치고,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약에 낫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 어디가 예수쟁이들과
다르단 말인가? 찢려도 우린 피가 안 난단 말인가?
간질여도 웃지 않는단 말인가? 독이 먹여져도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인가? 모욕을 당해도 복수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딴 것들이 다 당신네나 한 가지라면, 이 일에 있어서도 한 가질 것 아니오.
가령 유태인이 기독교인을 모욕했다고 합시다.
기독교인의 관용은 뭐겠소? 복수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유태인을 모독한 경우 기독교인들을 본뜬다면
유태인은 어떤 인내를 해야 옳겠소? 물론 복수요. (3.1.52-63)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은 악한이자 악마로서 간주되거나 기독교 사회에서 부당하게 박해당하는 피해자로 간주되어왔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유물론 이후의 비평에서는 문학 텍스트나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타자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켜서 유태인 샤일록을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타자로 해석해냈다. 이 논문은 크리스테바의 비체화 이론을 토대로 타자로서의 샤일록이 어떻게, 왜 비체로서의 샤일록이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비체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샤일록은 베니스의 기독교 사회가 깨끗하고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어놓은 경계선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 타자, 즉 비체가 되었다. 샤일록을 비체로 만드는 장치인 경계선에는 계도와 특수한 유태인 복장 같은 눈에

보이는 경계선과 종교적, 경제적 측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그러나 샤일록은 빌려간 돈을 제날짜에 갚지 못한 앤토니오에게 1파운드의 살을 떼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런 경계선을 넘어 기독교 사회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경계선을 넘으려는 샤일록의 시도는 1파운드의 살에 대해 다른 해석체계를 제시한 포오샤에 의해 저지당하고 샤일록은 다시 비체의 자리로 추방된다.

타자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비평은 악한으로서의 샤일록과 피해자로서의 샤일록을 모두 아우르고 피해자로서의 샤일록의 해석에 사회구조적 요소를 도입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자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비평의 강조점은 억압받는 타자의 수동적인 측면이었다. 비체로서의 샤일록에 대한 비평은 이런 타자의 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항상 경계를 벗어나서 지배 체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조한다. 아마도 이것이 비체로서의 샤일록 비평이 보여주는 새로운 의미이자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학, 「‘타자’로서의 유태인: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연구」, *Shakespeare Review*, 1997.
- 백민아, 「샤일록의 타자성」, 『영어영문학 연구』 54(2), 2012.
-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전집』, 김재남 역, 서문당, 1996.
- 이미선, 「단일 의미의 불가능성-『베니스의 상인』에서 ‘1파운드의 살’을 중심으로」, *Shakespeare Review*, 1998.
- 정은숙, 「자메이카 킨케이드의 『애니 존』에 나타난 어머니/식민지 본국의 비체화」, 『영어영문학』 57(2), 2011.
- Barber, C. L., *Shakespeare's Festive Comedy: A Study of Dramatic Form and Its Relation to Social Custom*, Princeton: Princeton UP, 1959.
- Brady, Mary Pat, “The Fungibility of Borders,” *Nepantla: Views from South* 1(1), 2000.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1990.
- _____,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London: Routledge, 1993.
- Coats, Karen, *Looking Glasses and Neverlands: Lacan, Desire, and Subjectivity in Children's Literature*,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2004.
- Cohen, D. M., “The Jew and Shylock,” *Shakespeare Quarterly* 31, 1980.
- Creed, Barbara, “Kristeva, Femininity, and Abjection,” *The Horror Reader*, ed. by Ken Gelder, London: Routledge, 2000.
- Danson, Lawrence, *The Harmonies of the Merchant of Venice*, New Haven: Yale UP, 1978.
- Davis, Richard C., “Introduction,” *The Jews of Early Modern Venice*, ed. by Richard C. Davis and Benjamin Ravi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2001.
- Derrida, Jacques, *Of Hospitality*, Stanford: Stanford UP, 2000.
- Eagleton, Terry, *William Shakespeare*, Oxford: Blackwell, 1986.

- Garber, Marjorie, *Shakespeare After All*, New York: Pantheon Books, 2004.
- Kermode, Frank, "The Mature Comedies," *Early Shakespeare*, ed by John R. Brown & Bernard Harris, New York: St Martin's, 1961.
- Kitch, Aaron, "Shylock's Sacred Nation," *Shakespeare Quarterly* 59(2), 2008.
- Kristeva, J., *The Powers of Horror*, tr. by L. F. Céline, New York: Columbia UP, 1982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_____, *Strangers to Ourselves*, tr. by S. R. Leon, New York: Columbia UP, 1991.
- Kwon, Young-Keun, "The 'Other' in *The Tempest* and *The Merchant of Venice*," 『영어영문학』 9, 2002.
- Lacan, Jacques, *Écrits: A Selection*, tr. by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 Meyer, Adam, "Victim and Villain: Shylock in the African American Imagination," *Borrowers and Lenders* VII(2), 2013.
- Moody, A. D., *Shakespeare: The Merchant of Venice*,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64.
- Schneiderman, Stuart, *Jacques Lacan: the death of an intellectual hero*,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P, 1983.
- Shakespeare, William, *The Riverside Shakespeare*, ed. by Evans, G. Blakemore et al.,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4.
- Smith, Warren D., "Shakespeare's Shylock," *Shakespeare Quarterly* 15(3), 1964.
- Stoll, Elmer Edgar, "Shylock,"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sophy* 10, 1911.
- Derrida, Jacques, "Politics and Friendship: A Discussion with Jacques Derrida at the Center for Modern French Thought," University of Sussex. <http://www.hydra.umn.edu/derrida/pol+fr.html> (검색일: 2018.01.10.)
- Sentürk, Neslihan, "Border as an Abjection Tool and the Creation of Abject-ivities in *The Merchant of Venice*," <https://whatamiwriting.wordpress.com/2010/06/06/border-as-an-abjection-tool-and-the-creation-of-abject-ivities-in-the-merchant-of-venice/> (검색일: 2018.01.10.)

❖ ABSTRACT

Shylock as the Abject

Lee, Misun

Shylock in Shakespeare's play, *The Merchant of Venice* has been considered as either a devilish villain, or as a victim who was persecuted unfairly by the Christian society in Venice. By focusing on the matter of the Other, which has been summarily overlooked in literary texts and the literary criticism, it is noted that the New Historical and Cultural criticism interpreted Shylock as the racial, religious, and economic Other in the Venetian society which at the time was dominated by Christian idea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Shylock becomes an abjected Other, that is, the abject, based on Julia Kristeva's theory of abjection. According to Kristeva, an abjection is the process of expulsion of otherness from society, through which the subject or the nation tries to set up clear boundaries and establish a stable identity. Shylock is marginalized and abjected by the borders drawn by the Venetian Christian society, which in a strong sense tries to protect its identity and homogeneity by rejecting and excluding any unclean or improper otherness. The borders include the two visible borders like the Ghetto and the red hats worn by the Jews, and one invisible border in the religious and economic fields. By asking for one pound of Antonio's flesh when he can't pay back 3,000 ducats owed, Shylock tries to cross the border between Christians and Jews. Portia frustrates Shylock's desire to violate the border by presenting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 'one pound of flesh,' from Shylock's interpretation. And in doing so she expels him back to his original position of abject.

Key Words : *The Merchant of Venice*, Shylock, Kristeva, abjection, abject

- 논문접수일 : 2018. 02. 10
- 심사완료일 : 2018. 02. 28
- 게재확정일 : 2018. 03. 01

